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영토분쟁

조흥국

1. 서론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체제가 끝난 오늘날, 아세안 차원에서의 역외관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할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관계일 것이다. 아세안과 중국간 협력은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왔다. 1990년대 초 중국은 캄보디아에서의 평화 정착에 기여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공산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1997년에는 중국이 'ASEAN+3'에 포함되어 중국과 아세안간 공식적 대화관계가 형성되었다. 2002년에는 양측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립되었다.¹ 같은 해에 양측간 조인된 FTA(자유무역지대) 협정은 2010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미 2009년에 아세안의 최대 대외무역 파트너가 된 중국은 중국-아세안 FTA 발효 이후 동남아시아의 시장에서 갈수록 큰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² 양측간 무역관계의 이러한 발전은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의미 평가에 있어서 '기회'로 해석되기도 한다.³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간 관계에는 이러한 상호 협력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위협'의 측면도 확인된다. 여기서 '위협'은 상호적 성격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위협을 의미한다. 그러한 '위협'은 무엇보다도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남중국해의 몇몇 군도들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간 분쟁에서 엿볼 수 있다.

2.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

중국-아세안 FTA로 대표되는 최근의 양측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진출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주도적 및 공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년간 아세안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5배 증가했다.⁴

아세안에 대한 중국 주도적인 경제적 진출의 현상은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메콩광역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에 속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대륙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MS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윈난(雲南)성과 광시(廣西)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GMS는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도로 메콩 유역권 국가들의 교통, 전력, 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상호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

¹ Zhang Xuegang. (2011). "China's Engagement with ASEAN: A Harmonious Marriage?" *ASEAN Monthly Commentary* 5. p. 12.

² 2009년 아세안의 주요 무역파트너 및 그 무역비율은 다음과 같다. 아세안 24.7%, 중국 12.6%, EU 10.6%, 일본 10.0%, 미국 9.4%, 한국 4.5%. 이에 대해 한-아세안센터. (2010). 『2010 한-아세안 통계집』. 서울: 한-아세안센터. pp. 38-3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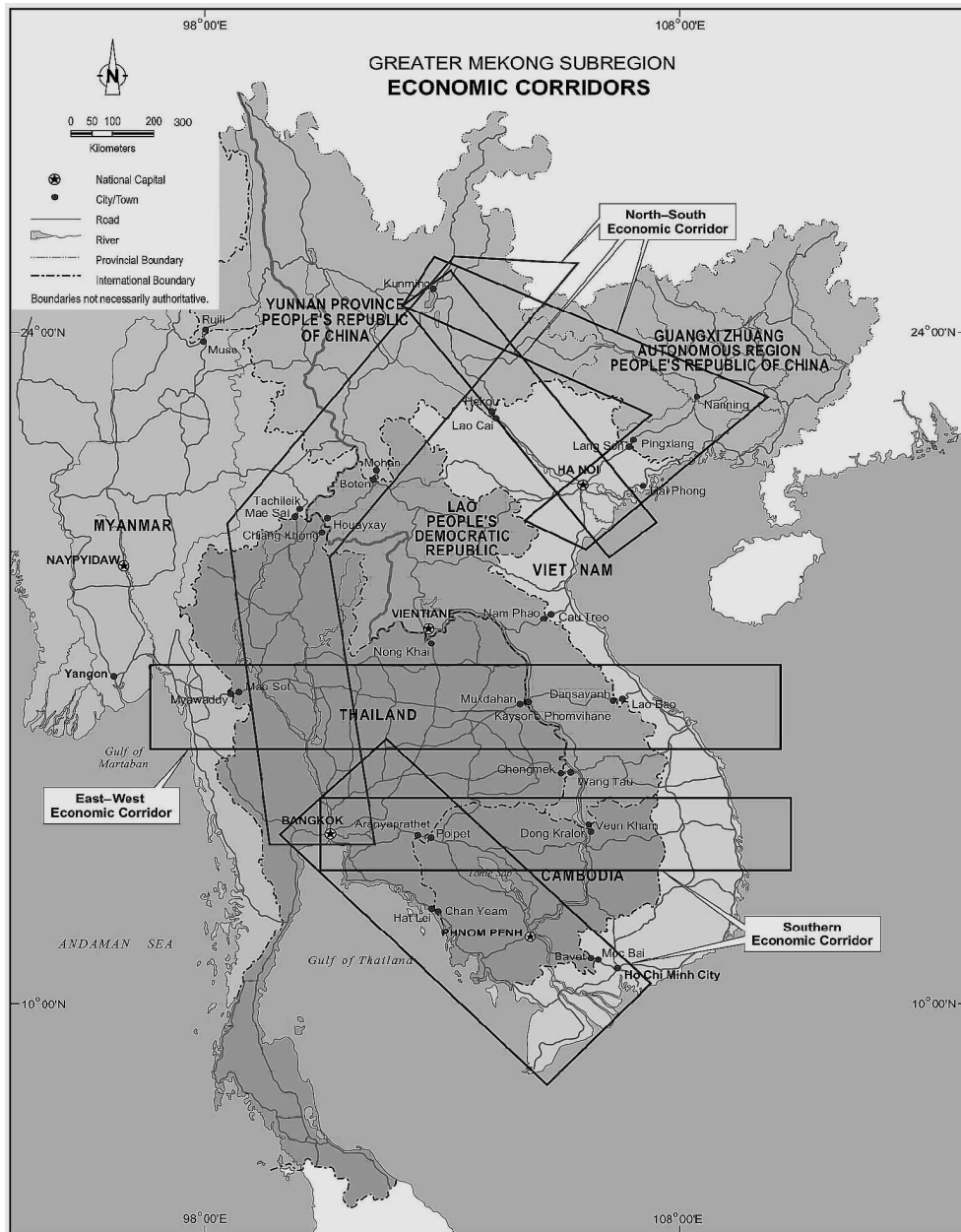
³ 박사명. (2011). "중국의 영향과 동남아의 대응." 『동남아시아연구』 21(2). p. 246.

⁴ Wade, Geoff. (2010). "ASEAN Divides." *New Mandala*. <http://asiapacific.anu.edu.au/newmandala/2010/12/23/asean-divides>. 2011/09/14. P. 4.

발과 무역·투자 협력을 추구하여 이 지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만든다는 발상에 기초하여 성립된 하나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이다.⁵

중국은 GMS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GMS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중국이 중시하는 GMS의 운송·교역 인프라는 소위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다음의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건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약 11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지도 1> GMS의 경제회랑⁶



① 북-남 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 윈난성의 쿤밍(昆明)에서 태국의 방콕까지

⁵ 정재완. (2002). “메콩강 유역개발 추진현황 및 전망.” 조흥국 외. 『메콩강과 지역협력』.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 385.

⁶ ADB. (2010).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outhern Economic Corridor*.

- ② 동-서 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베트남 중부의 항구들에서 미얀마의 인도양 연안까지
- ③ 남부 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 방콕-프놈펜-호치민-붕따우(Vung Tau)항

원난성에서 출발하여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연결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2009년 7월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교두보 전략’(Bridgehead Strategy)을 발표했다. 그 목적은 중국이 원난성을 교두보로 삼아 원난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루트를 건설하고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대륙 동남아시아에서의 운송루트 건설계획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GMS 국가들을 연결시키는 철도 건설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8월 제16차 GMS 각료급 회담에서 모든 GMS 국가들을 2020년까지 철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해 10월 원난성 국경도시인 모한(磨憨)에서 라오스의 수도까지의 철도 건설이 착공되었다. 또 중국과 태국은 고속철도 3개 노선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에 합의했다. 3개의 철도 노선과 라오스 내의 철도가 완공되면, 원난성에서 말레이시아 국경까지 철도로 연결될 것이다.

원난성 당국은 쿤밍에서 하노이까지 그리고 쿤밍에서 미얀마의 만달레(Mandalay)를 거쳐 양곤까지 이르는 육상루트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5월 중국은 미얀마와 중국-미얀마 회랑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것은 쿤밍에서 중국 국경도시 루일리(瑞麗)와 미얀마의 만달레를 경유하여 벵골만의 짜옥퉁(Kyaukphyu)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 6월 시작된 짜옥퉁과 쿤밍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총 25억 4천만 달러가 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얀마의 석유 및 가스를 용이하게 수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의 석유 및 가스를 중국의 유조선이 몰라카해협과 남중국해를 경유할 필요 없이 벵골만 연안에서 미얀마를 경유하여 바로 중국 내륙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중국과 GMS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간 경제적 관계는 상호 동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점은 명백하다.⁷ 중국의 지배적·주도적인 역할은 특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거버넌스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중국간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와 중국간 소위 “특별한 관계”는 이미 많이 논의되어 있다. 그것은 최근까지 인권탄압으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받아온 미얀마 군부정권이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도움에 의지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을 가리킨다. 중국은 그 관계를 통해 중국의 상품과 무기의 판매를 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미얀마는 물론 인도양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⁸ 중국 정부는 또한 그 관계를 통해 만달레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 북부에 많은 중국인들을 이주시켜 왔다. 지난 20년간 미얀마에 유입된 중국인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⁹ 이렇게 유입된 중국인들에 의해 만달레 이북의 미얀마 지역이 자국의 정부보다는 중국에 의해 통제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혹은 “만달레와 북부 미얀마의 중국 식민지화”라고 말하기도 한다.¹⁰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수력발전과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구리 등 광산업 외에도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국간 무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양국간 무역액은 30억 9,400만 달러로 미얀마 대외무역의 25%

⁷ Wade, Geoff. (2010). op.cit. pp. 1-5.

⁸ 조흥국. (2007). “영국 식민 진출 이후 미얀마 화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17(1). p. 20.

⁹ Worldpress.org. 2007/03/01.

¹⁰ 조흥국. (2007). 앞의 논문. p. 25; Wade, Geoff. (2010). op.cit. p. 8.

를 차지해, 중국이 미얀마의 아세안 역외 무역파트너 중 최대국가였다.¹¹

중국은 라오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세안 역외의 최대 무역파트너이다. 2009년 양국간 무역량은 7억 2,000만 달러에 달해 라오스의 전체 대외무역 중 16.5%를 점했다.¹² 이 액수는 2008년에 비해 77%나 증가한 것이었다. 양국간 무역은 2010년 상반기에 또 60% 증가했다. 이처럼 라오스 역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¹³ 중국은 라오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태국을 추월했다. 중국의 자본이 투입되어 라오스에 수력발전용 댐이 건설되며 쿤밍과 위양짚을 잇는 철도 건설이 진행 중이다. 철도가 완성되면 라오스의 중국에 대한 관계 내지는 의존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투자는 특히 국경지대에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보게오(Bokeo) 주의 톤퐁(Ton Phueng)과 보텐(Boten)에 중국 기업들의 사업진출을 위해 특별경제구역(SEZ)을 만들었다.¹⁴ 증대되는 중국의 투자와 더불어, 술한 중국인들이 라오스에 들어와 정착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부의 국경 지방뿐 아니라 수도에도 많이 살고 있다. 비공식적인 추산에 의하면, 최근 약 40만 명의 중국인이 라오스에 입국했다.¹⁵ 위양짚에는 이미 대규모의 화인 상가 내지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동네가 조성되어 있다. ‘라오스의 중국 식민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캄보디아의 대외무역 중 9.3%를 차지하여 캄보디아의 아세안 역외 무역파트너 중 미국과 EU에 이어 3위이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중국이 최대국가이다. 2010년 7월까지 중국은 캄보디아와 360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총 800억 달러의 투자협정을 맺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에서 중시하는 사업 부문은 석유개발권, 발전소, 교량 및 고속도로 건설, 금융 등이다. 또 중국과 캄보디아간에는 많은 정치적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캄보디아 화인협회(Chinese Council of Cambodia)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화인협회는 중국 국무원(國務院) 산하의 해외화인 업무 담당기관인 교무판공실(僑務辦公室) 즉 교판(僑辦)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이 관계를 통해 예컨대 최근 캄보디아의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중국에서 많은 중국어 교사들이 초빙되었다.¹⁶

3.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간 해양영토 분쟁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위협적 관계의 또 다른 측면으로 남중국해의 몇몇 도서들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간 영유권 분쟁이 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서들은 특히 스프레틀리(Spratly)군도와 파라셀(Paracel)군도 등이다. 스프레틀리군도는 중국에서는 남사(南沙)군도, 베트남에서는 썬영사(Truong Sa)군도, 필리핀에서는 칼라야안(Kalayaan)군도라고 부른다. 파라셀군도는 중국어로는 서사(西沙)군도라고 칭한다.¹⁷

스프레틀리군도와 파라셀군도 등이 위치하고 있는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운송의 약 4분의 1이 이루어지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의 80% 이상이 통과한다.¹⁸

¹¹ 미얀마의 대중국 수출은 5억8,700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25억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심한 무역적자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한-아세안센터. (2010). 위의 책, p. 38 참고.

¹² 중국의 뒤를 이어 EU가 7.2%, 일본이 2.5%, 한국이 2.1%, 미국이 1.5%였다. 이에 대해 한-아세안센터. (2010). 위의 책, p. 38 참고.

¹³ Wade, Geoff. (2010). op.cit. p. 5.

¹⁴ AsiaNews 2011/01/14; AsiaNews 2011/01/29.

¹⁵ Wade, Geoff. (2010). op.cit. p. 5; Nga Pham. (2008). “China Moves into Laid-back Laos.” *BBC News Online* April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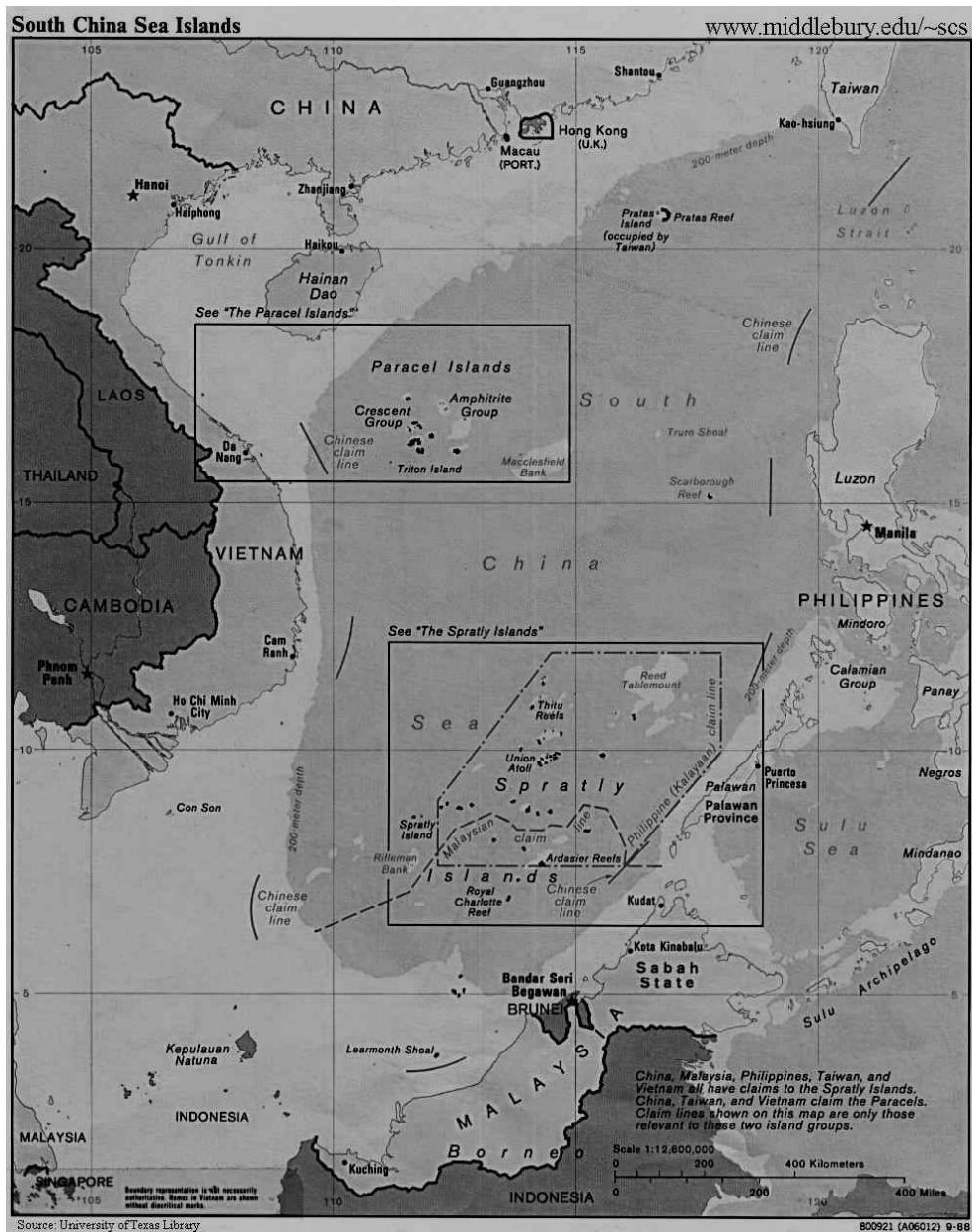
¹⁶ Wade, Geoff. (2010). op.cit. p. 7.

¹⁷ 김자영. (2011).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안암법학』 34. pp. 1064-1065.

¹⁸ Richardson, Michael. (2009).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ASEAN Studies Centre Report No. 8. Singapore: ISEAS. p. 30.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입하는 자원의 90%가 남중국해를 통해 운송된다. 전세계 어획량의 10%가 잡히는 남중국해는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이 대량 매장되어 있다.¹⁹ 특히 남중국해는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은 1993-1994년 지질탐사 결과 남중국해의 해양퇴적층에 종래 발견된 석유와 잠재적 석유의 매장량을 총 283억 배럴로 추산했다. 그에 비해 중국은 매장량을 최대 2,130억 배럴로 잡고 있다. 중국측은 또 남중국해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2,000조 ft³(입방피트)로 추정하고 있다.²⁰

<지도 2> 남중국해의 스프레트리군도와 파라셀군도²¹



¹⁹ 김자영. (2011). 앞의 논문. pp. 1065-1067; 전황수. (1999). “중국과 ASEAN의 스프레트리군도(南沙群島) 분쟁: 갈등양상과 해결노력.” 『국제정치논총』 39(1). p. 260.
²⁰ Severino, Rodolfo C. (2009a). “Preface.”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ASEAN Studies Centre Report No. 8. Singapore: ISEAS. p. vii.
²¹ http://www.southchinesea.org/maps/schina_sea_88.jpg (2011/12/4).

남중국해는 그밖에 동아시아의 해상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바닷길을 통해 인도양 연안국들, 특히 인도와 페르시아만 및 아라비아해의 중동 국가들과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한다. 괌과 일본에 해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남중국해는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남중국해는 해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과 수산업을 위한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보 그리고 해상순찰 및 감시 등 해상안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프레틀리군도와 파라셀군도의 이해관계 국가들은 그 영유권 문제를 중시한다.

스프레틀리군도와 파라셀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파라셀군도에 대한 영유권 갈등은 중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다. 베트남 중부 해안과 중국 하이난(海南)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파라셀군도는 1974년 중국이 무력으로 베트남에게서 뺏은 후 중국의 실효지배 하에 놓여 있다. 그에 비해 스프레틀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모두 6개국이다. 이 중 중국, 대만, 베트남은 군도의 모든 섬들에 대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는 일부 도서들에 대해서만 영유권을 주장한다.²²

오늘날 남중국해에서의 도서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갈등의 초점은 스프레틀리군도에 놓여 있다. 스프레틀리군도는 100여개의 작은 섬들, 사주, 환초,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중국이 7개, 대만이 1개, 베트남이 29개, 말레이시아가 7개, 필리핀이 10개의 섬을 실효지배하고 있다.²³ 스프레틀리군도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중국, 인도차이나반도를 식민화한 프랑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 등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패전 후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도서들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상호 갈등이 별로 없었다.²⁴

1968년 스프레틀리군도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관련 국가들간 영유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중국은 1974년 이 군도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발표하면서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서사군도(Paracel Islands), 중사군도(Maccesfield Islands), 동사군도(Pratas Islands)는 모두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그 주변해역의 자원도 모두 중국에 속한다”고 발표했다.²⁵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스프레틀리군도의 여러 섬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군사적인 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지배의 조치를 취했다.²⁶

1980년대 말부터 영유권 분쟁은 관련국가간 무력충돌의 양상을 띠기도 했다. 1988년 3월 스프레틀리군도의 섬들에 대한 점유경쟁 과정에서 중국 해군이 베트남 해군의 선박을 공격하고 침몰시켜 약 70명의 베트남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²⁷ 1992년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은 이듬해 1996년에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비준하고는 중국의 영해 범위가 이전의 37만km²에서 300만km²로 확대되었다고 천명했다.²⁸

중국이 오늘날 남중국해에서 소위 ‘U-라인’의 영해경계를 주장하는 근거는 UNCLOS이다. 1982

²² Richardson, Michael. (2009). op.cit. p. 8.

²³ 김자영. (2011). 앞의 논문. pp. 1080-1081; Richardson, Michael. (2009). op.cit. p. 3.

²⁴ 전황수. (1999). 앞의 논문. pp. 263-265.

²⁵ 전황수. (1999). 앞의 논문. pp. 263-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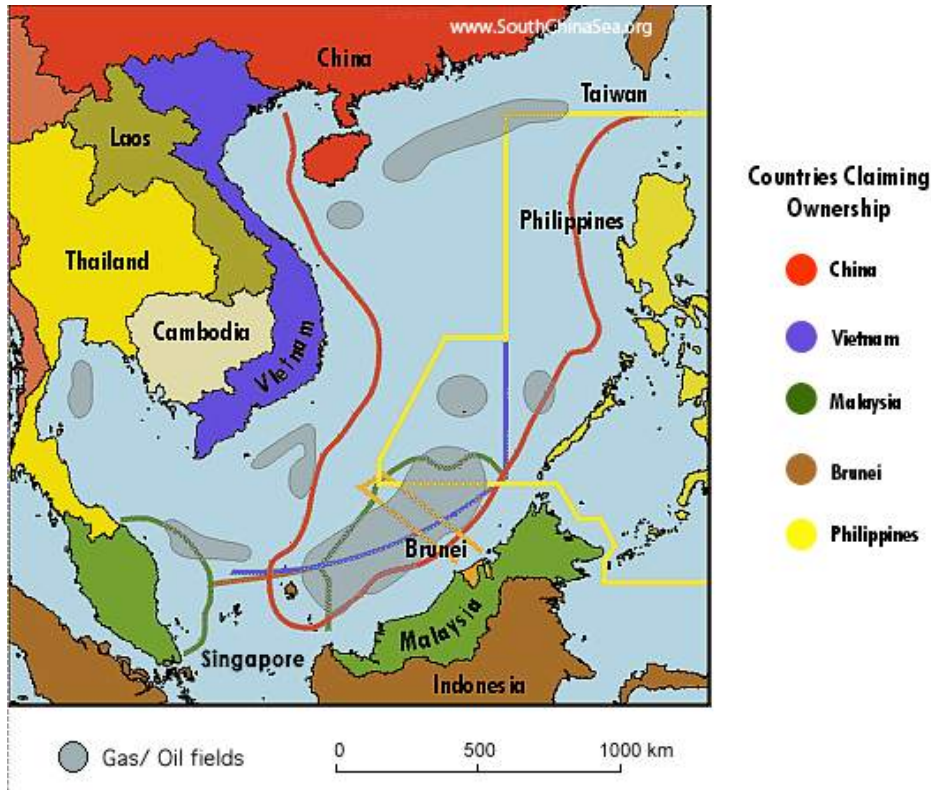
²⁶ 김자영. (2011). 앞의 논문. p. 1074.

²⁷ Valencia, Mark J. (2009). “Whither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Singapore: ISEAS. p. 68.

²⁸ 전황수. (1999). 앞의 논문. p. 264.

년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된 UNCLOS 제151조는 연안국들이 기선(基線)으로부터 200마일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해역과 해저 위와 밑의 천연 자원을 조사·채굴·보존·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지도 3> 스프레틀리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³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보호·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1995년 당시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미스치프암초(Mischief Reef)에 초소와 위성안테나를 설치했다. 필리핀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중국은 1999년에는 이 시설물들을 허물고 보다 크고 견고한 기지를 세웠다.³¹ 또 중국은 최근 2011년 5월에는 베트남의 중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해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베트남의 석유탐사선 설비를 일부 파괴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은 “중국측의 행동은 중국의 관할 해역에 대한 정상적인 단속 활동”이라고 반박했다.³²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갈수록 거세지자, 2002년 11월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에 합의했다. 이 선언은 조인국들이 UNCLOS를 준수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국가간 갈등을 야기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의 남중국해 도

²⁹ Kwa Chong Guan. (2007). “Reflections on the Chang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Kwa Chong Guan and John K. Skogan. eds. *Maritime Security in Southeast Asia*. Abingdon: Routledge. p. 192; Severino, Rodolfo C. (2009b). “Clarifying the New Philippine Baselines Law.”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Singapore: ISEAS. p. 74.

³⁰ <http://www.southchinesea.org/images/Overlapping%20EEZ%20Claims%20and%20Oil%20Fields.png> (2011/12/4).

³¹ 김자영. (2011). 앞의 논문. p. 1075.

³² 『조선일보』. 2011/05/30.

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강해지자, 동남아시아의 관련 국가들은 자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2009년에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남중국해에서의 대륙붕 한계 확장을 경쟁적으로 신청했다.³³

한편 필리핀 의회는 2009년 2월 필리핀이 스프레틀리군도의 일부와 스카보로우사주(Scarborough Shoal)에 대한 영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2009년 필리핀 기선(基線)법안(2009 Philippine Baselines Bill)을 승인했다. 필리핀이 이 법안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스프레틀리군도의 섬들과 스카보로우사주는 모두 중국과 베트남이 이전부터 그 영유권을 주장해 왔던 것으로, 필리핀 의회의 2009년 조치는 중국과 베트남 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³⁴

남중국해의 도서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갈등은 중국이 파라셀군도와 스프레틀리군도 등에 대한 실효지배와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갈등 당사국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이 'U-라인' 등으로 대표되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그냥 말로만 할 뿐 그 실행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남중국해에서의 현재상태의 도서 실효지배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면, 중국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샘 베이트맨(Sam Bateman)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력에 호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간 무역 및 투자관계가 확대되는 등 양자간 협력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³⁵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점차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며, 이에 맞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을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주장을 법으로 확정짓고 실효지배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심지어 군대를 파견하는 등 물리적 수단을 쓰면,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대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 남중국해의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³⁶

³³ 김자영. (2011). 앞의 논문. p. 1076.

³⁴ Bateman, Sam. (2009). "Commentary."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ASEAN and Its Dialogue Partners*. Singapore: ISEAS. p. 41.

³⁵ Bateman, Sam. (2009). op.cit. pp. 47-48.

³⁶ Richardson, Michael. (2009). op.cit. pp. 9-11.